



기아차 '모닝'



현대차 '제네시스'

경차 아니면 대형차

車 구매 양극화 ... 소형차·준중형차 선호도 크게 떨어져

올 들어 경차와 대형차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형 및 준중형차의 선호도는 크게 떨어지는 등 차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경차의 경우 사상 최악의 고유가 속에서 '모닝'과 '마티즈'의 몸값이 크게 치솟았다. 경차의 인기 급등은 고유가와 배기량 1천cc 미만의 차량에 대한 혜택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중대형 차종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현대차 '쏘나타'와 '제네시스', 쌍용차의 '체어맨' 등 중대형 차종들은 올해 신차 출시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반면 경차와 대형차의 사이에 낀 소형 및 준중형차에 대한 인기는 급락했다. 고유가 추세와 소득·소비 양극화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패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경차와 대형차의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94.9%, 22.9% 늘었다.

반면 소형 및 준중형차는 판매가 4.9% 감소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인 자동차 판매의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모닝' 1년 전보다 3배 이상 판매 급증=기아차 '모닝'은 올 들어 4월 3만3천55대가 팔려나갔다. 이는 국내 차량 가운데 3번째로 많이 판매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4%나 늘었다.

기아차는 올해 '모닝'이 경차로 편입된 데다 고유가 등 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맞물리면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닝'은 경차지만 소형차에 못지않은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다 최근 정부의 유류비 연간 10만원 지원 혜택 등에 힘입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닝'은 최근 구입 자체가 힘들어져 중고차값까지 덩달아 뛰고 있다. 기아차는 현재 생산시설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3~4개월 가량 주문이 밀려 있다. 생산물량만 충분했다면 판매량 1위에 오를 수도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GM대우의 경차인 '뉴 마티즈'는 전체 차량 가운데 판매 6위에 올랐다. 판매량은 경쟁차종인 '모닝'의 독주로 지난해보다 3.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 4월 1만8천476대가 팔려나가면서 '국민 경차'다운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자동차 판매 순위

순위	차명(회사)	판매대수(대)	전년 동기비 증감률(%)
1	쏘나타(현대)	4만28591	35.2
2	아반떼(현대)	3만3192	-14
3	모닝(기아)	3만3055	314
4	그랜저(현대)	2만5097	-13
5	포터(현대)	2만2999	2.6
6	올뉴 마티즈(GM대우)	1만8476	3.2
7	싼타페(현대)	1만8109	30.9
8	SM5(르노삼성)	1만7614	-25
9	스타티스(현대)	1만5807	5.5
10	제네시스(현대)	1만2035	(올해출시)

◇'제네시스'·'체어맨' 등 신차 효과로 급부상=중·대형세단도 판매가 늘었다. 소비자들이 경제성을 따져 아예 경차로 가거나 아니면 품위를 내세울 수 있는 중·대형차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고급 차량 분야에서는 세대교체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는 올해 1만2천35대가 팔려나가며 출시 4개월 만에 1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쌍용차의 '체어맨W'와 '체어맨H'는 각각 1천982대와 2천651대가 팔려 총 4천633대의 판매고를 올

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가량 늘어난 것으로 소비자들의 신차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현대차 '에쿠스'와 기아차 '오피러스'는 판매량이 폭 떨어졌다. '에쿠스'의 경우 올해 판매량은 2천159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4천463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오피러스'도 '제네시스'에 밀려 판매량이 37%나 줄었다.

이밖에 올해 국내 판매량 1위는 '쏘나타 트랜스폼'이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 모델은 올 들어 4월까지 4만8천591대가 팔려나가 1위에 올랐다. 신차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35.2% 증가했다.

◇고유가 여파 SUV시장 침체 - 소형·준중형차도 부진=고유가로 인해 SUV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베스트셀링카'에 오른 기아차의 '스포티지'는 경우급 급등 등의 여파로 판매량이 14%나 급감, 10위권에서 밀려났다. '렉스턴'·'뉴카이런'·'액티언' 등 쌍용차의 SUV모델도 전체 판매량이 27%나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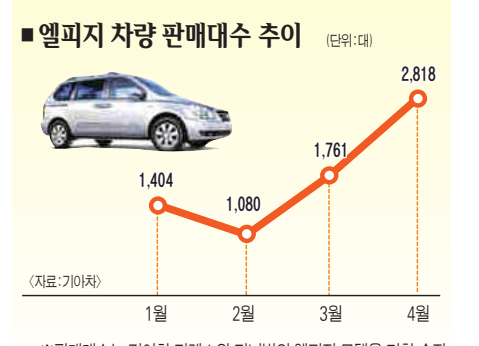
반면 현대차의 SUV인 '싼타페'는 올해 4월 1만8천109대가 팔려나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했다. 기아차 '카니발'도 고연비를 앞세워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9% 늘어났다.

특히 준중형차를 포함한 소형차는 최저 현상이 뚜렷했다. 이 차급의 대표 차종인 '아반떼'는 올해 3만3천192대가 판매돼 지난해보다 14%나 감소했다.

한국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은 경차와 대형 승용차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차량 판매의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10위권 내에 7개 모델을 진입시키므로써 국내시장의 '감자'다운 면모를 보였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LPG차량 판매 고유가에 쾌속 질주



고유가 추세로 인해 기아차의 '카렌스'와 '카니발' 등 LPG차량이 뜨고 있다. 한동안 인기가 시들했던 LPG 차량이 기름값 급등을 계기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기아차에 따르면 '카렌스'는 4월에만 2천334대가 판매됐다. 올해 1월에 1천14대, 2월 888대 판매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실적 향상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37.6%나 늘어난 것이다.

'그랜드 카니발'은 4월 한 달간 1천446대가 팔려 지난해 3월보다 60대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디젤 모델 판매는 150대 줄어든 반면 LPG 모델 판매는 210대나 늘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LPG승용차는 '카렌스'와 '카니발' 두 종류 뿐으로 LPG차량만 놓고 보면 지난 3월(1천761대)에서 4월(2천818대)로 한 달 만에 판매가 60% 가량 급증했다.

LPG는 저공해 원료인 동시에 가격이 휘발유의 절반에도 못 미쳐 2000년대 초반까지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세금이 치솟으면서 가격이 휘발유의 50% 수준을 넘어서자 인기가 떨어졌다. 기술진에 비해 연비가 낮은데다 LPG 충전소를 찾아다녀야하는 불편함까지 고려하면 매력이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다시 경제성을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LPG의 평균 가격은 916원으로 휘발유(1천732원)의 53%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현대차의 첫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반떼'의 LPG 모델을 기반으로 출시되는 만큼 LPG차량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는 GM대우의 LPG차량인 '레조'의 후속 모델도 판매가 시작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쌍용차 '체어맨'



현대차 '싼타페2'



GM대우 '마티즈'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1. 신축 아파트 공사 (신안)

2. 아파트 리모델링 (신안)

3. 아파트 리모델링 (신안)

4. 아파트 리모델링 (신안)

5. 아파트 리모델링 (신안)

6. 아파트 리모델링 (신안)

■ 전문-설계-시공-대리, 방-배수-도, 전기-배, 배수-처리-설비-시공-대리, 배수-대리-시공, 배수-대리-시공

■ 아파트 리모델링, 방-배수-도, 전기-배, 배수-처리-설비-시공-대리, 배수-대리-시공

■ 아파트 리모델링, 방-배수-도, 전기-배, 배수-처리-설비-시공-대리, 배수-대리-시공

유일정공(주)

TEL: 010-9441-1111

니후후의 현대정공 동흥 골드레이크 회원권 분양·상담

골드레이크OC

1. 골드레이크OC
계간-회비-VIP

2. 골드레이크OC
계간-회비

골드스파&리조트

1. 골드스파&리조트
19-28-38-57명칭

2. 골드스파&리조트
19-28-38-57명칭

골드레이크빌리지

1. 골드레이크빌리지
51명칭-2인세대
11명칭-4세대

전주·시군 농산물 30%까지 할인-골드레이크, 우유건조기 10% 할인판매 062-382-2107